

2024.12.24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인사 말씀

2024. 12. 24. (수) 16:0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매 분기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시는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국가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25.1.20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자국산업을 보호·육성하기위한
각 국의 정책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입대비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3개월간 산업부처와 현장수요를 수렴하여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처의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조하여주신 각 부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금일 정책금융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년도 산업전망

첫째, 내년도 산업전망입니다.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3% 초반 정도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압력 축소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기대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한편,
지정학적인 긴장지속과 보호무역주의 증가에 따른
무역감소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IMF 경제성장률 전망('24→'25, %) 미국: 2.8→ 2.2 중국: 4.8→ 4.5

바이오·반도체·AI 등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석유화학·이차전지·철강·건설 등의 산업은
다소간 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책금융 대응도 보다 세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정책금융도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적하여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24년 정책금융공급실적 및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

둘째, 올해 정책금융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하는 건입니다.

금년도 중기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기보)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계획인 116조원을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금모집여건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혁신성장펀드가 당초 목표치인 3조원을
초과한 3.7조원이 결성되는 등
정책펀드도 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산업별 수요가 다변화되는만큼
정책금융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내실있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4개 기관은 2025년 올해대비 7조원(+2.9%) 증가한 247.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서는
 '24년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하여
 무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 ※ 참고: 5대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

분야	주요 산업(부문)	공급 계획
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원전·바이오(이동)·인공지능(신설)	37.2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나노·수소·컨텐츠·ICT·해양수산·교통· 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 딥사이언스·태양전지(신설)·물산업(신설)	21.5조원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정유섬유 항만장비·광학·플라스틱·시멘트· 석유화학(신설)·태양광(신설)	31.0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 ·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중견기업지원(신설)	16.7조원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기계·전기산업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29.7조원
		116조원 → 136조원 (+20조원, +17.2%)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중점부문 추가: 5대분야 40개부문 → 45개 부문으로 확대)

부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5대분야의 세부중점산업에
 인공지능 5조원, 태양전지 2,400억원 등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의 중점부문으로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2. 주요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저리설비투자대출 4.25조원 등
총 8.4조원의 정책금융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합니다.

자동차(13조원)·바이오(7.9조원) 등 내년 전망이 좋은 산업 외에도
이차전지(7.9조원)나 디스플레이(1.3조원) 등
대내외 경쟁 격화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에도
정책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접투자 1조원 등 투자 중심으로 지속 전환)

또한, 5대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액은
작년 1,500억원에서 '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 수치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한 것으로서
직접투자 외에도 3조원 이상의 혁신성장펀드와
지난 7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5,000억원 규모의 AI산업 특화 펀드 등을 통해
여신에 치우친 정책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3. 혁신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최고수준의 정책금융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을 도입합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집중지원과 함께 전담 금융기관을 배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처에서는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하여 기업을 선정하여 주시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III. 맺음말

오늘 협의회에서도 부처의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